



2008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공모절차 거쳐 4개분야 350개 사업에 1,335백만원 지원키로

대전시 제공 (기사입력: 2008/02/14 14:16)

대전광역시는 금년도 문화예술지원 공모사업을 심사, 4개분야 총 350개 사업에 13억 3천 5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240건 6억 3천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3건 2억 4천 6백만원, 찾아가는문화활동 지원 47건 2억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0건 2억 4천 9백만원이 지원된다.

이중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3개분야는 금년부터 통합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동일단체의 중복지원을 배제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개별적으로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이 크고 작은 예술단체가 다양한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은 수준 높은 공연작품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작품성 위주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원도심지역, 등산로 주변 등 문화소외지역 시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대중성을 중점으로 심사를 하였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 여러 문화예술 단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면서 사업의 공익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금년도 심사의 특징을

첫째, 과거의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신규사업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모니터링 실시결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는 등 4가지 분야 모두 모니터링 결과를 중요시 하였으며,

셋째, 다수 단체에 적은 금액을 고루 나눠주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수한 작품 위주로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년도 82%에 달했던 신청대비 선정율도 금년에는 73%로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엄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한편, 지역문화예술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나아갈 방침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심사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다.